

불교문화재 심의에 불교전문가 소외

문화재위 불교전문인력 부족



◇국가문화재의 지정·해제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발굴조사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모든 행위(수리나 복원 등)는 반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진은 재작년 군위 인각사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모습.

64대16. 프롭팅과 초등학교 간의 농구 경기 스코어가 아니다. '64'는 우리나라 국가지정 유형문화재(국보, 보물) 중 불교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16'은 문화재위원회 가운데 유형문화재를 다루는 건조물과 동산 문화재 분과의 문화재위원 19명 중 불교관련 전문가(3명)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불교문화재 심의에 불교 전문가는 소외된 셈이다.

18일 노태성 문화재청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범장 스님이 "불교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교 전문 인력이 문화재위원회에 다수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불교문화재의 비중과 중요성에 비해 불교 관련 전문가가 너무 적은 데서 비롯된 절박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현황=조계종 총무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불교문화재 지정현황 목록>을 참고하면 2002년 1월 1일 현재 국보의 56%, 보물의 66%가 불교문화재다. 시·도 유형문화재까지 합쳐도 우리나라 전체 유형문화재의 55%를 불교문화재가 차지한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 관리와 활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과에는 전체 19명 중 3명만이 불교관련 전문가다. 사찰건축, 탑과 등을 다루는 건조물 분과에 2명, 불상이나 회화, 전적 등을 다루는 동산 분과에 1명이 있을 뿐이다. 그나마 동산 분과에는 불상 전문가만 있지 불교회화 전문가가 없다. 이를 전체 문화재위원회로 확대하면 문화재위원 59명 중 불교관련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위원이 4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총무원측 설명이다. ◇필요성= '문화재위원회 내 불교 전문 인력 확대'를 요구하는 조계종의 주장은 단순히 통계상 불균형 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불교문화재 전문가가 아니거나 비불교인일 경우 불교문화재가 갖는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다.

자들의 입장에서 조석 예불을 올리는 공간이자 참배 공간이 없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임시 법당 등의 대안 마련 없이 쉽게 해체 보수에 동의하기는 힘들다. 정부 입장에선, 임시 법당까지 건립하려면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사찰과는 갈등을 빚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화재 지정 업무가 대부분인 동산 분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다. "얼

문화재위원회는 어떤곳?

문화재보호법 제3조 '문화재위원회 설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곳이다. 현행 문화재위원회 규정에는 90인 이내의 문화재위원과

문화재 지정·발굴·형상변경 심의 4월 25일로 현 59명 2년 임기 끝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모든 행위, 예컨대 수리나 복원에 반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 문화재위원회는 각기 특수성에 따라 건조물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문화재,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박물문화재, 박물관 분과 7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모든 행위, 예컨대 수리나 복원에 반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 문화재위원회는 각기 특수성에 따라 건조물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문화재,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박물문화재, 박물관 분과 7개

유형문화재위원 19명중 3명뿐

불교문화재 특수성 이해 부족 오류 가능성

조계종 문화부장 당연직 고려할만

전문지식·경험 지닌 스님 의사결정 참여 바람직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불교문화재는 신앙적 차원의 기능도 감안한 문화재 정책이 필요한데도 불교와 불교문화 이해하지 못할 경우 단순히 문화재적 가치만을 앞세워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건조물 분과에서 이러한 시각차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쉬운 예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을 해체 보수할 경우다. 건축사적 중요성만 감안하면 당장이라도 해체 보수가 해야 하지만, 절에 살고 있는 스님이나 불

마든지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데도 불교문화재 전문가가 없어 방치되거나 불교문화재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위원들 때문에 지정이 안 되는 경우도 때때로 있다"는 것이 한 스님도 문화재위원의 말이다.

또 다른 불교문화재 전문가는 "불교계의 요구에는 문화재위원회 구성에 불교문화재 전문가의 비중이 크게 약화되어 있거나 있다 하더라도 거의 비불교인이어서 불교문화재의 심의에 편파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황은미 성북노인복지관 재가복지팀장

세상사는 인연

기저귀 가는 일 미안해 하시더니... 세상 떠난 할머니께 배려받는 느낌

오래도록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인연이라는 말이 외로이 설 명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 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막연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달려 할머니(가명, 75세)와의 만남도 그렇습니 다.

재가(在加)노인, 말 그대로 집안에만 있는 노인들을 말합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당뇨와 고혈압으로 거동을 못하십니다. 초기에 당뇨 관리를 못하셔서 이제 할머니의 양발은 까맣게 썩어 들어 무하루 뜨는 해를 보고, 지는 해를 보고 그리고 복지관과 이웃들이 나누는 식사로 생활하시는 분이지요.

지난주 바람도 세차고 기온도 갑자기 푹 떨어져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위험한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매일 방문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에 가서 급한 연락이 옵니다. "큰일 났어요. 할머니 이마에서 피가 철철 나오." 몇 번째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상담과 도움을 전해드리고 있는 사회복지사이면서도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한 붉은 피는 언제나 긴장감을 극에 달하게 하지요. 열심히 말했습니 다.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날 때까지. 사람들은 목도리에 장갑에 뽀뽀하고 싸고 그리고 종종결음으로 지나다 냈지만 추운지도 몰랐습니 다.

할머니 대문 앞입니다. 아주 낡고 오래된 나무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이 보입니다. 회색 시멘트 바닥에 분명한 핏자국들. 방문을 활짝 엽니다. 이불을 동그랗게 말아 뺨뺨히 얼굴만 내밀고 앉아 계시는 할머니를 보니 안도감도 잠시, 벌떡 화를 내버립니다. "할머니, 다리도 불편한데 왜 나오셔서 다치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기저귀도 갈아

드리고, 식사도 챙겨 드릴 텐데..." 할머니는 그냥 웃으십니다.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기저귀 갈아 주는 게 얼마나 미안한지, 내 썩은 발가락에 양말 신겨주는 게 얼마나 미안한지... 오늘은 혼자 소변보러 가고 싶었어."

그랬던 거였습니 다. 그래서 혼자 힘 없는 다리에 힘을 주고, 디딜 수 없는 썩은 발가락을 마당에 디디고 어렵게 나오셨던 거였습니 다. 큰소리로 나무 랐던 맘이 불편해집니 다.

할머니는 딸이 있습니다. 사위도 있습니다. 손자와 손녀도 있고요. 그리고 사시는 할머니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삽니 다. 방문을 열고 하늘을 보면 저만치 보이는 고급 아파트 단지가 딸집입니다. 그런데 딸도 사위도 손자, 손녀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나는 노인 냄새, 썩은 발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할머니의 정신도 이전은 전혀 않다는 이유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웃들과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은 혼자인 할머니들에게서 오하려 배려 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 다. 누군가에게 '우리'라는 의미로 힘이 되어준다는 생각만으로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 다.

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 다. 오전에 무사히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었습니 다.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웃는 얼굴로 나오며 "할머니, 초등학교 학생들이 입학한대요. 며칠만 기다리면 온 동네에 꼬마들이 책가방 메고 뛰어 다니는 모습 볼 수 있을 거예요. 봄이 왔거든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네. 따뜻해졌더니, 추우면 얼마나 고생인데." 그랬나봅니다. 할머니는 먼저 가실 줄 아셨던 거였습니 다.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불구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회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

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회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진류·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 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사무실·조상묘소의 수맥·지자기·지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영험도량

탁기승 예언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원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